

통쾌 · 유쾌한 풍자 담은 연극 '마술가게'

극단미소 제152회 정기공연

입력시간 : 2009. 02.24. 20:00



극단미소가 이번에는 통쾌하고 유쾌한 코미디극을 펼친다.

극단미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연극사랑창원아트홀에서 폭소 풍자 코미디극 '마술가게'를 올린다.

2009년 경상남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작품이자 극단미소 제152회 정기공연인 이번 작품은 극단미소의 젊은 연기자들로 구성돼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2년에 발표해 지금도 대학로에서 흥런하고 있는 '마술가게'

는 작가 이상범의 재치가 돋보이는 탄탄한 구성으로 한바탕 웃음 뒤에 가슴 한 쪽을 찡하게 만드는 감동도 숨어있다.

고급 의상실에 나타난 노련한 늙은 도둑과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 도둑, 그리고 경비가 이야기 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또 색시한 마네킹들도 볼 수 있다.

두 도둑의 과장되고 기발한 몸짓과 풍자적인 대사를 통해 실컷 웃고 시름과 근심을 날려 보내자.

오는 27일부터 8일까지 연극사랑 창원아트홀에서 공연되며 평일은 오후 8시, 토·일은 오후 5시, 8시 두차례 공연되며 월화 공연은 없다.

관람료는 일반 1만 5000원, 청소년 7000원이며 전화(264-5264)나 인터넷 예매시 일반 1만 원 청소년 5000원이다. <박여진 기자>

<박여진 기자> yjpark@kndaily.com

<박여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경남매일**(<http://www.kn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kndaily.com